

아일랜드와 민족 작가: 조이스 작품에 나타난 예이츠

최 석 무

I

아일랜드(Ireland)를 대표하는 두 작가 조이스(Joyce)와 예이츠(Yeats)는 그들의 인생역정처럼 그들이 추구한 작품 세계도 확연히 달랐다. 예이츠는 아일랜드 민담을 소재로 하여 토속적이고 민족적인 성향의 작품을 썼고, 조이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아일랜드를 벗어난 더 넓은 세계를 추구하였다. 예이츠는 소작농과 귀족층을 이상화했지만 조이스는 이들을 경멸했다. 조이스는 중산층 출신이며 *율리시즈(Ulysses)*는 이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예이츠는 이들을 속물로 경멸했다.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조이스가 아일랜드 카톨릭계 출신이고, 예이츠는 아일랜드 지배계층이었던 영국계인 아일랜드 신교도계 출신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신교와 구교도의 차이는 몇 백년간 아일랜드 국민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비록 세기말이 되어 이러한 구분이 와해되었지만, 신·구교도간의 역사적 반목과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신·구교로 분열된 아일랜드 역사는 순수한 목적의 문화적인 운동도 정치적 의도를 다분히 포함하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기말 예이츠가 주도하고, 러셀(Russell), 싱(Synge), 고가티(Gogarty), 로버츠(Roberts) 등 신교도계 작가들이 주축이 된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이다. 조이스는 예이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카톨릭 출신의 조이스는 예이츠의 문화적

인 운동이 정치적인 목적을 수반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는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을 정치적으로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 신교도들이 문화적으로 아일랜드에서 그들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정치적 운동으로 보았다. 그들의 제국주의적 양상은 그들이 주장한 아일랜드인의 정체성이 영국인들이 생각한 아일랜드인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조이스 작품에는 문예부흥론자들을 언급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문예부흥론자들의 정체성을 파헤치고, 특히 예이츠가 주장한 아일랜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 작품, 특히 『율리시즈』를 분석하면서 예이츠의 이미지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조이스의 반응을 알아보려 한다. 특히 예이츠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아일랜드인의 특성을 조이스가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민족작가의 위상을 고수하려는 조이스의 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II

문예부흥론자들은 영국은 물질주의를 대변하고, 아일랜드는 정신주의를 대변하는 고귀한 민족임을 강조한다. 1898년 4월 13일 예이츠는 런던에서 열린 울프 톤(Wolfe Tone) 기념회에서 “우리는 영국의 이상과 야망, 즉 영국의 물질주의를 가장 증오했다. 아일랜드는 이 땅을 물려받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편을 들었다”(Ellmann 1987, 114-15)라고 아일랜드 정신주의의 중요성을 찬양했다. 또한 『자서전』(*Autobiographies*)에서 “나의 꿈은 항상 반영감정을 영국이 우리에게 준 최악의 생활과 전 생활의 기반이 된 저속함과 물질주의에 대한 증오감으로 바꾸는 것이었다”(431-32)라고 말하면서 영국이 물질주의를 대변하는 국가임을 주장하고, 아일랜드인들이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일랜드의 정신주의를 예찬하는 예이츠의 이러한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율리시즈』의 “이올로스”(Eolus) 에피소드에서 맥휴와 그의 동료들은 아일랜드의 정신주의를 찬양한다. 이러한 아일랜드인의 특성은 아이러니 하게도 영국 사상가인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아놀드는 아일랜드 독립을 반대한 연합주의자로서 아일랜드의 정신주의를 주장하면서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문예부흥론자들이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영국화 되었음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따라서 문예부흥을 통한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은 아놀드와 같은 영국 민족주의 자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일랜드인의 자부심을 고양하여 영국과 분리되기를 강조한 문예부흥운동은 아이러니 하게도 아일랜드를 영국과 더욱 밀접한 관련 속에 놓이게 한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정신주의에 집착해 있다는 영국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올로스” 에피소드에서 맥휴는 아일랜드는 정치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국가임을 당연시하면서, 스페인과 그리스와 같은 패배한 국가의 “충성스런 신하”(7.565)라고 주장한다. 그는 피러스(Pyrrhus)를 예로 들면서, 아일랜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민족임을 시인한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인의 특성이라고 주장되는 정신주의를 거부한다. 『프리먼즈 저널』(*Freeman's Journal*) 신문사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들은 아일랜드인의 정신주의를 칭송하고 영국의 물질주의를 조롱하지만, 조이스는 그들이 물질주의에 전염되어 있음을 보임으로 그들이 말하는 아일랜드인의 정신주의를 조롱한다. 도선(Dawson), 램버트(Lambert), 나네티(Nannetti), 크로포드(Crawford)는 물질주의에 집착해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이며, 아일랜드 저널리스트와 신문사들이 전반적으로 물질주의에 대한 집착으로 정치적인 노선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된다.

마일즈 크로포드가 인디펜던트지를 시작했지. 저따위 신문인들은 새로운 돈벌이 구멍이라도 생기면 이내 태도를 바꾸어 버리니 참 꼴불견이야. 번덕스런 인간들 같으니. 일시에 이랬다저랬다 하니. 어느 것을 믿어야 좋을지 모르지. 다음 이야길 듣기 전에는 한가지 이야기가 계속 좋은 거야. 피차간 녀석들은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 이내 만사가 잠잠해지고 말지.
(U 7.307-12)

조이스는 아일랜드인의 정신주의를 반대하고,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아일랜드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역설한다. 조이스 작품에서 주인공 불룸은 지속적으로 돈벌 공리에 집착해 있다. 조이스가 그리피스스의 신페인당을

옹호하는 이유도 이들의 건실한 경제정책 때문이다. 그의 에세이 “피니언니즘”(Fenianism)에서 조이스는 신페인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 . . 그들은 전 아일랜드에 산업을 육성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영국 국회에서 80명의 의원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25만 파운드를 지불하지 않고, 그 대신 세계의 주요항구에 영사관을 설립하려한다. 그래서 영국의 간섭 없이 공산품을 매매하려고 계획한다. (1964, 191)

조이스가 예이츠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비판한 내용은 죽음에 관한 생각이다. 「아일랜드 공군이 그의 죽음을 예견한다」(“An Irish Airman Foresees His Death”)와 「부활절 1916」(“Easter 1916”)에서 예이츠는 죽음을 영웅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자의 시는 그레고리 부인(Lady Gregory)의 아들이며 열렬한 영국 제국주의자인 로버트 그레고리(Robert Gregory)가 이탈리아 공군에게 실수로 격추 당해 죽게된 에피소드를 소재로 하고 있다. 후자의 시는 1916년 부활절 봉기 당시 피어스(Pearse)와 그의 동료에 관한 시이다. 부활절 봉기와 비교해 볼 때, 로버트 그레고리의 죽음은 어떤 영웅적인 행동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예이츠는 왜 영국 제국에 동조한 로버트의 죽음을 부활절 봉기 당시 희생당한 영웅들의 죽음처럼 영웅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죽음에 대한 영웅적 묘사는 로버트 그레고리와 같은 집단에 속한 앵글로 아이리쉬의 종말과 관계가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이후로 아일랜드에서 카톨릭을 지배하여 왔던 자신의 계층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에 예이츠에게 동료 앵글로 아이리쉬맨의 죽음은 그들의 집단의 성쇠와도 같이 영웅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한 단편인 「사자들」(“The Dead”)에서 예이츠의 이러한 영웅적 죽음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마이클 퓨어리(Michael Furey)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217)는 그레타(Gretta)의 말을 듣고 게이브리엘(Gabriel)은 영웅적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행해 옮기고 싶어한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모두 유명이 되고 말 것이다. 늙어서 시들어
쭈뼛히 사라지기보다는 어떤 정열이 가득 찬 영광 속에서 저 세상으로

대답하게 사라지는 것이 한층 나오리라. 자기 곁에 누워 있는 아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했을 때의 애인의 눈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까하고 그는 생각했다. (219)

이와 달리 『율리시즈』에서 조이스는 죽음을 경멸하여 “저 세상”을 조롱하고, 그 대신 “이 세상”을 추구한다. 조이스는 예이츠의 죽음에 대한 관념, 특히 그의 두개의 극, 『캐슬린 백작부인』(*Countess Cathleen*)과 『홀리한의 캐슬린』(*Cathleen in Houlihan*)에 나타난 영웅적 희생과 죽음의 신화를 거부한다. 따라서 앵글로 아이리쉬의 영웅적 죽음이라는 예이츠의 신화를 거부하고 있다.

“텔레마쿠스”(“*Telemachus*”) 에피소드에서 멀리건(Mulligan)은 스티븐이 그의 죽어가고 있던 어머니에게 불러주었던 노래인 “누가 퍼거스와 함께 가나?”(*Who Goes with Fergus*)를 부른다. 기포드(Gifford)와 세이드만(Seidman)에 따르면, 캐슬린 백작부인의 초판에서 “그 노래는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 악마에게 그녀의 영혼을 판 백작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불려진 노래이다”(18). 스티븐이 그 극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하프의 현을 키고 있는 손”(1.245)에서 나타나듯이, 예이츠의 극에서처럼 스티븐이 하프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숲의 그림자”(1.242)와 “희미한 바다의 하얀 가슴”(1.244-45)과 같은 그 노래의 다른 구절이 그의 의식 속에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이스의 작품에서는 모든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장면에서 한 상황이 작품 속의 다른 상황을 암시하면서 캐슬린 백작부인과 스티븐의 어머니는 서로 연결된다. 캐슬린이 그녀의 백성들에게 한 일은 스티븐의 어머니가 그녀의 자식들을 향한 “사랑의 쓰라린 신비”(1.253) 회상시킨다.

스티븐의 어머니는 또한 그녀의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홀리한의 캐슬린을 상기시킨다. 홀리한의 캐슬린은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돕고 싶다면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84)고 말한다. 스티븐은 꿈속에서 죽음을 요구하듯 나타난 어머니를 만난다.

꿈속에, 소리 없이, 그녀는 그에게 나타났었다, 험령한 수의에 쌓인 그녀의 버림받은 육체가 밀랍과 자단의 냄새를 풍기면서, 돌리지 않는 비밀의 말을 하려는 듯 그에게 덮쳐 왔던 그녀의 숨결, 현기증 나게 하는

젖은 재의 냄새.

죽음으로부터 노려보던, 그녀의 번쩍이는 눈, 나의 영혼을 흔들어 쥐어 놓으려고. 나 혼자만을. 그녀의 번뇌를 비취 주는 귀신 촛불.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 위에 비친 귀신 불빛. 모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공포 속에 그르렁거리고 있던 그녀의 거칠고 큰 숨소리. 나를 때려눕히려려고 노려보던 그녀의 두 눈. (1.270-76).

기독교와 민족주의는 공통적으로 피해 의한 희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코너 크루즈 오브라인(Conor Cruise O'Brie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러 세기동안 우리 문화권에서 증오를 합리화한 것은 종교였다. 그런데 종교 전쟁이 극도로 진행된 후, 전쟁과 박해를 합리화한 종교의 힘은 쇠퇴하고 민족주의 숭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 때부터, 국가의 이름으로 남성들이 다른 남성들,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증오하고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재인용 O'Connor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스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카톨릭교와 민족주의는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고, 카톨릭교는 아일랜드 정치, 문화 운동의 대중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종교는 민족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피어스는 전설적인 켈틱 전사인 쿠출레인(Cuchulainn)뿐만 아니라 성인인 콰실(Colmcille)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또한 피어스는 그의 시, “한 어머니가 말한다”(“A Mother Speaks”)에서 “인간을 위해 죽은” 예수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믿음에 비유한다: “성모마리아여, 나는 그대의 슬픔을 공유했고 곧 그대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Kearney 213). 피어스가 처형당한 후, 아일랜드에서는 “종교와 정치는 서로 연결되어 여러 면에서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Kearney 212).

따라서 스티븐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의 어머니의 주장은 아일랜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받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스티븐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홀리한의 캐슬린 역할을 한다. 이에 스티븐은 죽음을 거부하고 “나를 살아 있게 내버려 둬”(1.279)라고 말한다. “서씨”(Circe) 에피소드에서 어머니의 재출현에 “Nothung”(15.4242)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Not hung”이라는 말을 줄여 쓴 것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위

해 죽어간 피어스 같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처럼 죽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텔레마쿠스”(Telemachus) 에피소드에서 우유배달 할머니가 등장하는 장면은 「홀리한의 캐슬린」을 상기시킨다. 예이츠의 극에서 마이클(Michael)이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 노파”(79)를 보듯이, 헤인즈는 “저 여자가 우유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1.345)고 말한다. 캐슬린이 “가난한 노파”(85)로 불리는 것처럼 우유배달 할머니도 “가난한 노파”(1.403)라고 불린다. 홀리한의 캐슬린의 배경은 1798년 아일랜드를 돕기 위해 “프랑스 군대가 킬라에 상륙하고 있을 때”(87) 이다. 이것을 상기시키듯이 멀리건은 “프랑스군이 바다에 있었지”(1.543-44)라고 말한다. 비록 멀리건이 다른 배경에서 이를 언급하지만, 이 문장은 똑 같은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기포드와 세이드만이 지적하듯이, 이 문장은 “18세기 후반 아일랜드 민요인 ‘산 반 보크트(The Shan Van Vocht)’”에서 나왔다. ‘산 반 보크트’는 “가난한 노파로 아일랜드”(23)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산 반 보크트 역시 홀리한의 캐슬린 뿐만 아니라 우유배달 할머니와 연결된다.

그러나 조이스는 의도적으로 예이츠의 캐슬린을 반아일랜드적인 인물로 바꾼다. 캐슬린은 그녀 집에 “너무나 많은 이방인”(81)이 있어 그녀를 “방랑하게 만들었다”고 불평한다. 이와 달리 조이스의 가난한 노파는 “그녀의 정복자와 활달한 배반자”(1.405)인 헤인즈와 멀리건을 접대하고, 진정한 애국자인 스티븐을 경시한다. 이 장면을 통해 조이스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영국사람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은 다빈(Davin)으로부터 촌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 여인은 『울리시즈』의 우유배달 할머니를 연상시킨다. 그 여인은 다빈이 “물 한잔”(182)을 요구하나 “우유 한잔을 가져왔다”(182). 스티븐은 다빈을 유혹하는 촌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의 정체성을 탐색한다. 그녀는 “그녀와 그 자신의 민족의 전형으로서, 어둠과 비밀을 그리고 고독 속에서 깨나 스스로 의식을 되찾는, 그리하여 가식 없는 여인의 눈과 목소리 그리고 제스처를 통하여 낯선 사람을 그녀의 잠자리로 불러들이는 박쥐와 같은 영혼”(183)이다. 이렇게 아일랜드 촌부의 현실을 밝힘으로써 조이스는 예이츠의 이상화된 아일랜드 농부의 모습과 홀리한의 캐슬린의 이미지를 탈신비화한다.

홀리한의 캐슬린에서 캐슬린은 음식, 음료, 돈을 거부한다. 이것은 아일랜드

드 민족주의자들, 특히 예이츠 등의 문예부흥론자들이 정신주의를 지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이스는 대다수가 앵글로 아이리쉬 출신인 문예부흥론자들이 카톨릭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하려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앵글로 아이리쉬 지주들을 해부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조이스는 그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굶어 죽고 있는 소작인들을 구할 만큼 관대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아늑하게 불이 켜진 호텔의 응접실을 골이 난 듯 뻗히 쳐다보며 그 속에 안일하게 살고 있는 아일랜드 귀족의 윤택한 생활을 상상했다. 그들은 군대의 승진이나 토지관리인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농부들이 시골길을 따라가다 그들을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를 할 것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름의 프랑스 요리를 알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뻑뻑한 말투를 꿰뚫는 듯한 소리 높은 지방 사투리로 마부들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다. (237-38)

「홀리한의 캐슬린」에서 순교는 죽음과 영웅적 패배를 수반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1798년 유나이티드 아이리쉬맨의 봉기가 그 배경이기 때문이다. 그 실패한 봉기처럼 캐슬린의 유혹을 받은 아일랜드 남성들은 봉기에 실패하고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예이츠는 진정한 순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일랜드에 사는 우리들은 자기 회생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완전히 대중일 때, 그리고 대중적인 명예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행위로서 생각하여 왔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은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기억되는 비극 가운데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 희생하는 것을, 그 순간을 그 순간에 바치는 것을. (1962, 375)

예이츠의 순교의 신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순교자는 외적 결과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독립의 비전이나 그의 행동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점에서 예이츠와 앵글로 아이리쉬 작가들의 순교의 의미는 독립 선언서를 만든 1916년 카톨릭 순교자와 다르다. 켄즈(Cairns)와 리차드즈(Richards)는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택된 민족의 부활은 앵글로 아이리쉬 리바이벌리스트와 아이리쉬 리바이벌리스트의 공통된 문학적 비유법이다. 그러나 그들간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 작품의 결론에 있다. 한 쪽은 살아있는 신념으로써의 부활, 다른 한 쪽은 무한히 연기하는 가운데 그 실현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수복주의자의 이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이상으로서의 부활.

(106)

“사이클롭스”(“Cyclops”) 에피소드는 이와 같은 예이츠의 순교의 의미와 “끔찍스런 아름다움”(1989, 287-89)을 초래한 순교의 실행을 탈신화화한다. 이 에피소드에 제시된 처형 장면은 로버트 에멧(Robert Emmet)의 처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시대적 배경이 아일랜드가 나폴레옹 군대의 도움을 얻고자 한 1803년이라는 점에서 「홀리한의 캐슬린」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조국을 위해 죽어라는 캐슬린의 요구를 따르는 듯이 순교자와 아일랜드 사람들은 기쁘게 순교 장면을 대한다.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 나오는 “funferall”(13)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장례식(funeral)은 모든 이에게 기쁨(fun for all)이다.

순교자의 처형식에 “적어도 50만 명에 달하는 군중”(12.532-34)이 모였다는 사실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순교자에 대해 가진 존경심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피니언니즘」(“Fenianism”)이란 글에서 죽은 오리어리(O’Leary)에 대한 아일랜드 사람들의 태도를 비난한다: “그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의 동포들은 화려하게 그를 무덤으로 에스코트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들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심장을 찢지만, 죽은 자를 위해 큰 존경을 보이기 때문이다”(1964, 192). 앵글로 아이리쉬 작가들의 죽음 숭배는 순교자를 찬양하는 와일드 백작부인(Lady Wilde)의 시, “형제들: 헨리와 존 쉬어즈”(“The Brothers: Henry and John Sheares”)를 지칭하는 “스페란자의 명상적 시가”(12.539)에 의해 암시된다. 영국화된 아일랜드 사람들인 멀리간과 레네한도 “평소에 그들의 쾌락을 불려일으켜 주던 방법으로 『래리가 교살 당하던 전날 밤』”(12.542-43)을 부르면서 처형식에 참여한다. 순교하는 장면과 어울리는 이 벨러드는 순교를 지지하는 노래이다. 리차드 커니(Richard Kearney)가 지적하듯이, “순교에 가장 일반화된 반응중 하나는 신화처럼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벨러드, 단편, 또는 라임”(1985, 67)이 출현하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쾌활한 배반자”인 멀리간이 그러한 애국적인 노래를 부른다

는 사실은 문예부흥론자들의 순교에 대한 관념은 그들의 영국화를 지시해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예부흥론자들이 아일랜드 영웅들이 그들의 나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 아일랜드의 전통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제국주의 팽창 전쟁에서 영국 군인들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쳐야한다는 논리의 모방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일랜드의 순교의 전통이 영국 식민지 과업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생겼다는 점에서 강조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형집행인이 도착하자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12.596-97)는 사실을 통해 조이스는 에이츠가 주도한 순교 숭배를 조롱하고 있다. 사형집행인의 “잔인한 그러나 불가피한 직무의 찬미자”(12.617-18)는 아일랜드 국민들로서 이들은 순교할 “한 무리의 양들”(12.616-17)을 미리 준비했다. “한 무리의 양들”이란 구절은 종교적인 회생, 특히 피어스가 사용한 카톨릭 순교를 상기시킨다. 카톨릭교의 중대한 역할은 “총독이 주관한 연회”(12.551-52)의 의장이 이탈리아 사람인 “바찌바찌 베니노 베노네”(12.556)라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암시된다. 이것은 또한 오랜 기간 동안의 교황청과 영국 정부의 공모관계를 제시해 주기도 한다. 조이스는 교황청의 아일랜드 국민에 대한 착취를 이탈리아인 바찌바찌 의장이 “그의 나이 어린 동료들의 호주머니로부터 그들의 정신을 차리게 할 생각으로 32개의 호주머니 속에 감추어져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냈다”(12.586-88)는 사실에서 암시하고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 애국자가 순교하는 장면을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화 되었다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묘사한다. 조이스는 “사이클롭스” 에피소드의 전형이 된 로버트 에멧(Robert Emmet)의 봉기를 “바보 같은 봉기”(1964, 189)라고 하여 이 봉기가 아일랜드인 보다는 영국인들에게 더 많은 이로움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영국인들은 이 봉기를 문제삼아 아일랜드 사람들을 더욱 혹독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실로 삼았다. 에멧은 사라 커런(Sara Curran)과 약혼했는데, 그녀는 “사이클롭스” 에피소드에서 “셸러”(Sheila)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 이름은 “아일랜드를 지칭하는 상징적 이름”(Gifford and Seidman 336)임으로 조이스는 그녀에게 상징적인 중요성을 부과하려 했다. 세이머스 딘(Seamus Deane)이 주장하듯이, “문학과 정치에서 국토를 명명하는 것은 정치적 불안정과 지역적 충절의 징후이며, 이는 근대 아일랜드 역사를 정의한다”(13).

역사적으로 볼 때 에멧의 순교는 그녀의 애인 커런이 영국군인, 헨리 스타

전(Henry Sturgeon) 대위와 결혼함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조이스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여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세일러가 “잘 생기고 젊은 옥스포드 졸업생”(12.658-59)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이들의 결합을 축하하고 순교자를 잊어버린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인의 특성이라고 주장한 감상주의에 빠져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중 속의 모든 귀부인들은 두 개골과 대퇴골 모양을 한 브로치를 그날의 멋진 기념품으로 선사 받았는데” 이는 “감동의 폭발을 일으켰다”(12.663-65). 이 기념품은 “텔레마쿠스”(“Telemachus”) 에피소드에서 헤인즈가 스티븐에게 제공한 담배와 같이 일종의 뇌물로써, 피지배민들이 그들의 혹독한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때때로 사용되었다.

라드포드(Radford)는 “청중들이 애국자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청중들의 혼합된 감정은 영국 왕의 방문과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쁨, 그리고 원래 청중들의 슬픔을 합쳐놓았다”(293)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보다는 이 장면을 통해 조이스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감상주의를 풍자하고 있다. 아놀드가 주장한 아일랜드인의 특성인 이러한 감상주의는 아일랜드인이 정치적으로 무능함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이러한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대로 행동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이클롭스” 에피소드는 예이츠와 문예부흥론자들이 주장한 애국자들을 숭배하고 정신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물질주의와 감상주의의 젖어 대의를 망각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조이스는 예이츠의 영웅적 죽음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인생과 삶에 집착한다. 『율리시즈』에서 조이스를 대변하는 블룸과 스티븐은 죽음을 거부하고 삶을 찬미한다. “텔레마쿠스” 에피소드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신성스러운 이미지 없이 제시된다. 뱃사공이 물에 빠진 사람의 시체가 떠오를 것이라고 말하자, 스티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익사한 사나이. 부패된 시체가 불쑥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한 척의 뚝단배가 텅 빈 만 부근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소름에 절어 하얗게 된 부푼 얼굴을 태양을 향해 돌린다. 여기 내가 있소. (1.675-77)

“프로티우스”(“Proteus”)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은 그 익사한 사나이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는 모든 인간들은 배꼽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과 혼합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의 생명은 그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3.327-28)이라고 선언하면서 죽은 자와 거리를 유지한다. 스티븐은 죽음에의 유혹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끔찍한 것으로 여기고, 익사한 사나이의 죽음을 끔찍스러운 그의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시킨다.

그의 인간의 눈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나를 향하여 비명을 지른다. 나는 . . .
그와 함께 다같이 아래로 . . . 나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어. 바다: 비통한
죽음: 끝장이다. (3.328-30)

죽음과 매장을 주로 다루고 있는 “헤이즈”(“Hades”) 에피소드에서는 블룸의 죽음과 삶에 대한 태도를 통해 예이츠의 영웅적 죽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이츠의 캐슬린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인 그녀를 위해 죽었다고 주장하지만, 조이스가 가공한 인물 디그넴(Dignam)은 “심장마비”(6.305)로 갑자기 죽게 된다. 캐슬린이 “얼굴의 혈색이 빨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창백한 혈색을 가지게 될 것”(1934, 86)이라고 말한 것처럼, 디그넴의 얼굴도 “온통 잿빛”(10.1161)이 되지만, 그의 죽음에는 어떤 영웅적인 동기도 없다. 그의 아들 패트릭 디그넴이 회상하듯이, 디그넴은 “마지막 날밤 술에 만취되어 계단 마루에 서서 터니 주점으로 술을 더 마시러 가겠다며 구두를 찾아 놓으라 소릴 질렀다”(10.1167-69). 캐슬린이 “내일 무덤을 파더라도 곡을 하지 마라”(1934, 85)고 노래 부르지만, 디그넴의 아내는 “안방에서 울고 있었다”(10.1165). 캐슬린이 “이방인”(1934, 86)들은 부르지 마라고 경고하지만, 카톨릭이 아닌 블룸과 커넌(Kernan)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불평을 늘어놓는다. 예를 들어 커넌은 “마운트 제로미에서 거행되는 성공회 장례식이 더 단순하고도 인상적이다”(6.665-66)고 말한다.

블룸은 현재에 집착한다. 그래서 때로는 죽은 디그넴에 대해 동정심도 가지지 않는다. 그는 그의 사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심장마비사를 “고통이 없고 . . .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 . . 가장 좋은 죽음”(6.314)이라고 생각한다. 디그넴처럼 심장마비로 죽은 파넬(Parnell)에 대한 블룸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블룸과 달리 디그넴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파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과거와 감상주의에 젖어 파넬의 무덤을 방문하려 한다. 블룸은 죽은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디그넬의 가족들의 곤경을 이해하고 디그넬이 “보험에 가입”(6.535) 했는지 묻는다. 또한 그는 장례식을 “죽음의 허식”(6.499)이라 정의하고, 죽은 자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을 거부한다. 그 대신 “산 자를 위한 자선금으로 돈을 쓰는 것이 더욱 지각 있다”(6.930-31)고 생각한다. 예이츠 이외에 문예부흥론자들 중에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싱(Syngé)이다. 「바다로 나아가는 기사들」에서 모라(Maurya)는 죽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이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북쪽 끝에 깨끗한 장례식을 치렀지. 바틀리도 당연히 하얀 판자로 만든 훌륭한 관을 사용해 깊이 매장해야지”(27).

블룸은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예를 들어 “비석사이에서의 사랑”(6.758-59)을 꿈꾼다. 블룸에게 피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정원에 새 생명을 꽃피우”(6.771)는 비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조이스는 예이츠와 문예부흥론자와 달리 죽음의 신성스러움을 부정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 블룸은 사람이 죽으면, “남자는 야릇한 농담을 듣고 싶어하고 여자는 무엇이 유행하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6.789-90)고 말한다. 예이츠의 영웅적 죽음과 달리 블룸에게 죽음은 “수치스러운 일”(6.838)이며, 죽는 순간은 “아주 불쾌한 것”(6.843-44)이다. 이러한 블룸의 의식은 죽음 숭배를 조롱한다. 블룸은 에멧을 “사이클롭스” 에피소드에서 제시된 영웅적인 인물로 보지 않고, 위대한 영웅도 죽으면 “취들을 위한 평범한 고기”(6.981)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홀리한의 캐슬린」은 아일랜드를 위해 죽은 순교자들을 노래한다: “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 그들은 영원히 말할 것이다, / 사람들은 영원히 그들에 관해 듣게 될 것이다”(86). 이와 반대로 블룸은 죽은 자는 쉽게 잊혀진다고 생각한다.

쿵! 그는 숨이 끊어진다. 마침내 가버렸다. 사람들은 당신에 관해서 조금 이야길 한다: 잊어버리고 만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당신의 기도 속에 그를 기억해요. 심지어 파넬도. 담쟁이 낱은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그리고 그들은 뒤따르는 거야: 구멍 속으로, 차례차례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6.853-56)

흙이 보다 조용히 떨어졌다. 잊혀지기 시작하고 있다. 안 보면, 떨어지게

마련. (6.872)

누구누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한 기도. 누가 정말이지 그렇게 할까? 매장하고 나면 깨끗이 그와 관계를 끊고 마는 건데. 활송 운반기로 석탄을 아래로 내리듯이.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들을 한 덩어리로 뭉쳐 버리는 거다. 그것이 바로 '위령의 날'이야. (6.931-33)

흔히 죽음의 세계라고 이야기되는 “헤이즈” 에피소드에서 조이스의 주된 관심사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세계이다. 결말 부분도 삶에 대한 예찬으로 끝난다. 블룸은 “지옥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세계”(6.1001-2)를 싫어하고, 인생에 집착한다: “아직도 보고 듣고 느낄 것이 많이 있단 말이야. 자신 곁에 살아 있는 많은 따뜻한 몸뚱이를 느끼는 거다. 구더기가 꾸물거리는 침대 속에 그들을 잠자게 해줘. 놈들이 나를 오래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따뜻한 잠자리: 따뜻한 피가 충만한 생명”(6.1001-5). 조이스는 블룸이 이 세상에 대해 가진 애착을 보여줌으로써 예이츠의 캐슬린이 주장하는 죽음예찬을 거부한다.

Ⅲ

조이스 작품에 나타난 예이츠 비판은 아일랜드 카톨릭 작가에게서 나타나는 박탈감의 표현이다. 세기말 예이츠가 주축이 되어 문예부흥론자들이 아일랜드 민족과 언어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아일랜드 국민으로부터 국가를 대변하는 민족 작가임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조이스와 같은 카톨릭 작가들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문예부흥론자들을 비판하는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 “실러와 캐리브디스”(“Scylla and Charybdis”) 에피소드에서 스티븐이 앵글로 아이리쉬 지식인과 토론하면서 “나는 에서(Esau)의 목소리가 지긋지긋해”(9.981)라고 말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조이스는 앵글로 아이리쉬 작가들이 아일랜드의 문학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거부한다. 흔히 조이스는 편협한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벗어난 작가라고 인식되지만, 문예부흥론자들을 비판함으로써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민족 작가의 위치를 고수하려했다.

조이스는 예이츠가 주장한 아일랜드인의 민족적 특성은 영국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를 거부한다. 예이츠가 주장한 아일랜드인의 모습은

아일랜드를 영국에 더욱 복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예이츠가 주장한 아일랜드의 정신주의는 경제적 빈곤을 초래하여 영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속시켜왔다. 조이스는 이를 부정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아일랜드가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이츠의 죽음 숭배는 폭력적 투쟁을 정당시하여, 야만적이라는 아일랜드인의 민족성을 도출해내었다. 조이스는 폭력적 투쟁을 거부하고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강조하였다. 조이스 작품에 나타난 인생과 삶의 예찬은 인류평화 공존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온 북아일랜드 폭력투쟁은 피흘림을 통한 아일랜드 해방임을 생각해보면, 아일랜드를 대변하는 민족작가의 목소리인 조이스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의미심장하다.

(경주대)

인용문헌

- Cairns, David and Richards, Shaun. *Writing Irelan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8.
- Deane, Seamus. *Celtic Revivals: Essays in Modern Irish Literature 1880-1980*. Winston-Salem: Wake Forest University Press, 1985.
- Ellmann, Richard. *Yeats: The Man and the Masks*. London, Penguin Books, 1987.
- Gifford, Don & Seidman, Robert J.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64.
- _____.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8.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9.
- _____. *Ulysses*, Eds.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_____. *Finnegans Wak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2.

- Kearney, Richard. "Myth and Motherland." In *Ireland's Field Day*. London: Hutchinson, 1985.
- _____. *Transitions: Narratives in Modern Irish Culture*. Dublin: Wolfhound Press, 1988.
- O'Connor, Theresa. "Demythologizing Nationalism: Joyce's Dialogized Grail Myth" In Vincent J. Cheng & Timothy Martin, Eds. *Joyce in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00-21.
- Radford, F. L. "King, Pope, and Hero-Martyr: *Ulysses* and the Nightmare of the Irish History" *JJQ* 15 (Summer 1978). 275-323.
- Synge, J. M. "Riders to the Sea." In *Collected Works: Plays*. Book 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 Yeats, W. B. "Cathleen Ni Houlihan." In *The Collected Plays of W.B. Yeats*. Dublin: Gill and Macmillan, 1934.
- _____. *Autobiographies*. London: Macmillan & Co Ltd, 1955.
- _____. *Explorations*. New York: Collier Books, 1962.
- _____. *Yeats's Poems*. Dublin: Gill and Macmillan, 1989.

Abstract

Ireland and Its Nationalist Writers:
W. B. Yeats in the Writings of James Joyce

Seokmoo Choi

Because Joyce comes from the Catholic community and Yeats from the Protestant community, an agelong ruling class in Ireland, the two Irish writers are quite different in their literary world. Defining Irish identity and emphasizing physical struggle against the British, Yeats overtly expresses nationalistic views in his writings. On the other hand Joyce's way of doing this is more indirect. That is, Joyce in his writings subverts Yeats's conception of Ireland and Irish people and points out more appropriate ways of gaining liberation.

Yeats claims that Irish people represent spiritualism while English people represent materialism. Joyce attacks this binary division by evincing that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were made by the English to justify Irish failure in politics and make Irish people take their colonial status for granted. Joyce deconstructs the binarism by showing that Irish people asserting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are absorbed in seeking material interests. Also, Joyce rejects heroic death and the myth of martyrdom which are well described in Yeats's poems and plays. To Joyce physical struggle against the British only proves the British conception of Irish people, a violent people. Instead of death and martyrdom Joyce praises this world and the pleasure of being alive.

Joyce's consistent subversion of Yeats derives from his dilemma in Ireland where Anglo-Irish writers dominate the Irish literary world, leading Irish people spiritually. Joyce attacks Yeats who pretends to be the representative of Irish nationalist writers. Through his writing, Joyce, therefore, tries to recover the privilege of being called the Irish national bard.